

# 세계 7대 제약강국 발돋움 지원

## 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 정부지원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8월23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소규모 단위로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니 발전이 더디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제약도 현재 변화단계에 와 있다”며 “제약산업이 그동안 진통이 있었지만 발전의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제약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제약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3>